

“공부하는 의회…활력 넘치는 사무국 조성”

황경아 광주시 남구의회의 의장

제9대 남구의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황경아 의원은 광주 최초의 여성 3선 의원으로 폭 넓은 의정 활동 경험과 주민과의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민원 해결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황 의장은 앞으로 집행부와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며,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감시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다.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를 통해 의원 개인 역량 강화와 활력 넘치는 남구의회를 만들겠다는 황 의장을 만나 향후 의정계획을 들었다.

3선 의정 활동…경험·인맥 장점

전문가 연결·연구모임 개설 지원

옛 보훈병원 등 기존 사업 마무리

황경아 의장은 “제 9대 남구의회는 ‘공부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를 비전으로 지방의원 개인의 의정 역량을 강화해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겠다”며 “부적절한 관행은 바로

잡고 각종 제도와 자치법규를 주민의 입장에서 과감히 결정하고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장은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전문분야를 이끌어내고 일하는 의회사무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는 “의원들이 각자 지역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에 저마다의 해답을 갖고 있다. 전문가와의 연결과 연구모임 개설 등 의장으로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면서 “그동안 비회기 기간 의회사무국은 쉬는 곳이라는 인식을 뒤엎고 집행부에 정책 제안 등 활력이 넘치는 의회사무국을 만

들겠다”고 다짐했다.

황 의장은 남구의회 3선의원으로서 풍부한 의정 경험과 폭 넓은 인맥, 주민과의 소통 능력 등이 강점이다.

그는 “그동안 의회 입성을 위해 온 힘과 열정을 다했다. 주민들에게 이 열정을 온전히 쓸 계획이다”며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초심을 잃지 않고, ‘3선 의원’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게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황 의장은 남구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들이 계획대로의 마무리와 기존 주민들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재생 사업과 지하철 공사로 교통 체증이 증가해 주민들의 출·퇴근길이 힘들어진 상황이다”며 “옛 보훈병원 활성화와 백운광장 도시재생 사업 등 기존 숙원 사업들을 계획대로 마무리 짓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임대를 통한 사업들이 토지가액



증가 등으로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면서 “에너지밸리 산단 조성 등 도시가 개발되면

서 이에 따른 기존 거주민들의 상생과 균형 발전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황 의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감시 견제 기능을 강화하되 집행부와 소통으로 효율적인 사업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황 의장은 “이전에는 사업 계획과 예산을 기준으로 심의했으나 이번 의회는 사업 계획 전 단계부터 심의할 예정이다”면서 “사업의 성과가 없을 시 과감히 예산 삭감을 진행하고 신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주민들의 의견 수렴 활성화를 위해 의회가 주체인 ‘민원 청취의 날’을 계획하고 있다.

황 의장은 “주민들의 민원은 바로 뛰면서 문제점을 파악해야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서 “정기적으로 지역구 의원들과 현장을 방문하고 집행부와 협의해 좋은 정책들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여성안전 실무협의체 간담회

광주시 남구(청장 김병내)는 21일 구청 7층 상황실에서 여성안전 수준 향상 및 정책추진을 위한 여성안전 실무협의체 T/F를 구성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남구 제공

공립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호응’

광주시 남구 지역에 공립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으면서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7월 한달간 월산4동 작은도서관과 대촌동 생태 작은도서관, 달피 작은도서관, 푸른길 작은도서관 4곳에서 각 도서관 별로 주민들을 위한 연령별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월산4동 작은도서관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폐기물을 줄이는 제로 웨스트 프로그램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정에서 내다 버리는 자원을 활용해 비누와 식기 세척기 세제, 고체 치약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다.

대촌동 생태 작은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

이름에 걸맞게 ‘처음 만나는 자연 스케치’라는 주제로 자연 속에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파랭이꽃과 열레지꽃, 개망초 등 다양한 야생화를 살펴본 뒤 기본 스케치를 그리고, 채색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살린 작품을 완성할 수 있어 대촌동 문화 사랑방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밖에 달피 작은도서관은 고령층 주민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어르신들을 위한 ‘독서인지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푸른길 작은도서관은 미취학 아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네이비 밴드를 활용한 ‘손으로 읽는 그림책 놀이’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민찬기 기자

첫 ‘통일강사’ 배출…남북교류 밑거름 나선다

평화 도슨트 양성과정 수료식

광주시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42명이 시민 통일강사로 한반도 평화와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 역할을 나선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최근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제1기 남구 평화 도슨트 양성과정 수료식이 열렸다.

수료증을 받은 주민 42명은 지난 4월부터 시민 통일강사 활동에 필요한 남북 관계 기본 교육을 비롯해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집중 연수 프로그램을 마쳤다.

특히 호남지역 유일한 통일 교육기관이자 체험 학습장인 광주 통일관 현장 탐방을 비롯해 남북 관계에 대한 인문학적 사고를 습득하는 등 평화·통일의 길라잡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이날 수료식을 통해 아직까지도 이루지 못한 한반도 평화 및 통일을 향한 새로운 역사에 비상한 자세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했다.

시민 통일강사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통일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청소년 및 각종 주민들의 모임 속으로 파고 들 예정이다.

박혜경 시민 통일강사는 “남북을 오고 가는 길만 막힌 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까지도 닫히고 막혀 있었다”며 “통일강사로써 열심히 활동해 남구 지역사회 곳곳에 평화와 통일의 촛불을 하나씩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병내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통일강사로 양성한 것은 전국에서 우리 남구가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분의 활동이 전국 표준이 될 것이기에 자부심을 갖고 평화·통일의 메신저가 돼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전 직원 10월까지 청렴진단 실시

부정·부패 없는 공직사회 조성

광주시 남구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바라는 주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진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남구는 “공직사회에 대한 주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시작 전에 내부 행정망을 활용한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며 “오는 10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돌보기 진단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은 개인별 청렴도를 스스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남구청 모든 공직자들은 총 28차례에 걸쳐 자가 진단에 나선다.

자가 진단을 위한 학습 콘텐츠는 6개 범주로 구성됐다. 모든 공직자들은 본인 청렴 수준을 진단하는 진단 평가를 비롯해 이해충돌 방지법 10개 행동기준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는 이해충돌 방지 가이드, 부정 정탁 및 행동강령 등의 상황을 전달하는 청렴 교육, 사자성어로 알아보는 부패행위 사례 콘텐츠 등을 학습하게 된다.

/민찬기 기자

M 전남매일 | 장애인 학대 신고 캠페인 |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신고전화 1644-8295



장애인을 때릴 때



장애인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몸을 만질 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장애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며 괴롭힐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식사를 안 주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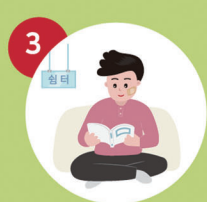
장애인학대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조사를 합니다.



3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의료·심리·거주·사법·복지



4 잘 지내는지 확인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장애인에 대해 해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장애인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로 전화합니다.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하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



design by